

자신과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할 감사

신명기 33:26-29, 고린도전서 15:1-11

최정웅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께 2015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세우셨으니 모자라고 어리석은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2015년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거의 80, 90%가 다 지나갔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 오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한다. 끔찍한 테러가 프랑스에서 또 일어났다. 프랑스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악령 들린 IS 집단이 계속해서 만행을 저지르는데 국가와 정부가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가운데, 세상 살리는 기도와 결단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과 현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세상에는 지금도 분쟁, 다툼, 시기, 질투가 계속되고 있다. 교과서가 맞다 틀리다 하면서 싸우고, 선거구를 가지고 싸우고,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싸운다. 경찰차를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다. 국가의 재산을 왜 저렇게 하는가 싫다. 나라를 전복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왜 저런가, 왜 무엇을 뒤집어쓰고 하나, 땀땀하다면 벗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다. 저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숙한 국민이 되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요구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실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정의를 기준으로 내세워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있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 상태가 남아있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응답을, 이번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 중요한 열쇠가 근본에 대한 감사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감사 각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서 각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1) 그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과, 그로 인하여 오는 멸망,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이 상태 속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아시아에만 5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예수를 믿는다. 98%는 이 멸망과 재앙,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한다. 그게 될 수가 없지 않는가. 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결국 원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버렸고 죄와 저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수많은 자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지만, 더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

져 버린 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힘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칼뱅이 밝혔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속에 있으니 멸망당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이다.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무치는 감사와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았다. 죄인 중의 괴수 같은 나를 건져주셔서, 찾아오시고 살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다. 이 감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키게 되기를 바란다.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각인된 사람은 불효할 수 없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가슴에 각인된 사람은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을 통해서, 마음껏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기를 축원한다.

(2) 모든 사람은 창세기 6장의 정욕과 타락에 매여 있다. 네피림 시대가 현장에 완전히 찾아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른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특히 기쁨을 건져주시는 것이다. 모든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셨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감사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계속 깨어지게 되어 있다. 복음 받은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혼자 믿으시는 분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의 제사장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대체로 많은 가정,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란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을 분들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란다. 친구, 가정이 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3) 감사할 이유가 많고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의 실락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자. 성공 아닌 것을 성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바벨탑에 불과했음을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알게 된다. 엘리트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문제가 끝났는가?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가 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저 문제 속에서 건져 주시고, 참된 성공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를 키울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비테가 없다고 한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봤다고 한다. 김정은 집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다고 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엄청나지 않나? 그 전에는 돌맹이 사이에 걸터앉아서 용변을 보고, 지푸라기나 돌맹이로 뒤를 덮었다. 그게 제대로 덮아졌는가. (웃음) 조금 발전되어서 쓴 것이 비료 포대다. 엉덩이가 험고 치질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나. 나중에는 신문지를 잘라서 썼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달력을 찢어서 쓰고 휴지가 나온 게 몇 십 년 안 됐다. (웃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때 비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인데, 그래도 감사가 없다. (웃음) 다같이 고백해 보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 불만이다. 죽어서 입 다물게 되어야 불평을 안 하지. (웃음)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되겠는가. 이번 달의 주제가 감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온전한 것이다. 더 다른 받을 것도 없고,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유튜브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선교사 사모님이 강의를 하더라. ‘왕의 재정 학교’라는 곳에서 강사를 한다는데, 말을 너무 잘 하더라. 우리 교우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걱정이 되었다. 첫째는 최정웅 목사가 또 복음 말고 다른 것 한다 소리 나올까봐. (웃음) 둘째는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하고 있다. 왜 우리 중에는 부자가 없나.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안 되겠다. 우리 교우들 부자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초청해서 좀 들려주고 싶다.’ 나는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못 하고 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시기 바란다. 부자 되어도 괜찮다. 부자가 되시기 바란다. 다른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이 복음 받은 것 하나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다. 복음은 최고의 것이다. 부도 권력도 지식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다. 여러분,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속의 감사와, 가정을 주신 감사와, 허물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데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넘치기를 축원한다. 이 감사의 이유를 정말 누리는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원한다.

2. 감사를 실천하여 각인시킬 방법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이다. 감사를 실천할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1) 첫 번째다. 앞서서 이야기한 근본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정말 보여야, 이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십자가 사건이 나와 후대에게 새롭게 보일 수 있게 된다. 절대 절망에 처해 본 사람이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수십 억 원의 빚을 지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회복되더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갈보리산의 은혜 체험이라고 한다.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평생 잊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정말 불행해져도,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다.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된다. 이 감동이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는 감동과 감사가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 한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나봐. 나를 버려나봐.’ 악령에게 속는 것이다. 그러니 200억 되는 재산이 있는데도, 두 아이를 남겨두고 자살해 버렸다. 자기 뿐 아니라 자기 동생도, 자기 전 남편도 다 자살하게 만들었다. 속으면 안 된다.

(2) 이렇게 복음이 근본적으로 내 속에 각인되고 있다면, 두 번째 되어야 할 것은, 이 감사가 내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을 가리켜 감람산 체험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가? 행1:1,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으면, 이제 되어야 할 부분이 행1:3,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감사할 이유를 계속 찾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학교, 직장, 가정,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는 체험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되어지면, 감사가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감사가 있게 된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동안 말씀하셨던 복음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알아듣도록 정리해 주신 것이다. 세례를 받는 우리 교우들은 세례문답서를 반복해서 읽

어 보라.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복음이 내 속에 근본적으로 각인되고 있다면 감람산 체험이 되어야 한다.

(3) 여기까지 되어졌다면, 이제는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깊은 시간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마가다락방 체험이다.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해 들어갔는데, 복음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이 된 것이다. 감사가 각인되고 뿌리내렸으면, 이제는 체질이 될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약속으로 붙잡고, 내 현장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기도가 감사 체질을 만드는 중요한 해답이 된다. 한 번만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어진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후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어려울 때, 행복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빠 엄마를 보니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

(4) 그러면 반드시 오는 단계가 있는데,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행2:1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다.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난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이 현장에 임하게 된다. 이것을 보면서 또 감사할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평생 응답받기 때문에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세례받는 분, 입교하는 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주 앞에 설 때까지 감사가 그치지 않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오늘의 결론은 감사 점검이다. 감사가 각인, 뿌리, 체질로 나오게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과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후대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가 이것을 못 보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와 버리지 않나. 성인 되면 교회를 떠나 버린다. 부모님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 감사의 헌신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감사는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고 각인되게 된다. 어려움 당할 때 생각하게 된다. ‘이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신앙이 계속 전달되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불평, 짜증을 더 많이 보여준다. 감사, 감격, 감동의 삶을 못 보여준다. 그게 현실 아닌가. 이 불신앙은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나와 후대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체질을 제거하는 감사의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면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입의 감사가 중요하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전도는 못 할망정 입으로 교인들을 쫓아내는 일은 그만두어라. 마음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행동의 감사가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감사가 각인되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후대는 그 감사의 모델을 보고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시편 50:15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후대가 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주수감사절에,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감사할까를 묵상했습니다. 나와 후대에게 이 감사를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셨으니, 이제 불평, 불만, 짜증, 질투, 분쟁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